소공동체 모임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간단한 차로 교우를 대접하면 큰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 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 1. 시작 성가: 89장(주 하느님 자비로이), 55장(착하신 목자)
-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 3. 성서 읽기: 요한 9장 1-41절 (어둠에서 빛으로)
 - 요한 10장 1-10절 (참된 목자요 문이신 예수님)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하라.(화살기도)
-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 7. 기타: 새 교우 인사, 공지사항, 다음모임 결정
-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 9. 마침 성가: 92장(구세주 내 주 천주여), 29장(주 예수 따르기로)

MEMO

[아시겠지만]

성체만 영해도 미사에 참여한 것이 되나요

하느님께서는 성체 성혈뿐 아니라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때 성체 성혈만 받아 영하면 반쪽만 영하는 것이 요, 말씀까지 받아 영할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전에는 예비 미사 정도로만 생각되어 오던 '말씀 전례' 부분이 제2차 바 티칸공의회에서 다시 부각됨으로써 지금은 '성찬 전례' 못지 않게 미사 안에 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례'는 그리스도 생애의 사건, 또 그 장면의 신비, 그때 그 장소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업적을 이룩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말씀 전례는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 신비를 기념함으로써 성찬전례를 준비시킵니다.

미사는 말씀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전례'에 이어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는 생각만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이 '성찬 전례'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감정, 찬미의 노래, 봉헌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은, 즉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인자한 분이신 가를 신앙으로 선언하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에서 '성찬 전례'는 저절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에서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에 제대로 참여할 때, 우리는 미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주제: 어둠에서 빛으로(요한 9,1-41)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볼 수 있는 정상인으로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태생소경이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그저 자기가 "예수라는 분" 에게 치유 받았다고 말하고(11절) 나중에는 "예언자"라고 말했으며, 그 다음에는 "하느님 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33절) 이 사람의 내적 시력이 성장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다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은 더욱 더 어두어져간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법을 완전히 안다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정신적인 소경들이었다. 기적 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죄하지만 자기들이 거짓 지도자라는 사실을 행실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낸다. 그 당시 로마제국은 유다인 들에게 종교적 특전을 주어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서 제외되었다. 그러 나 회당에서 추방당하면 이 특전도 상실됨으로, 황제에 대한 예배를 거역할 경우 처형을 당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기원 후 1-2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당에서 쫓겨남으로 해 서 죽음을 당했었다. 그러므로 이 소경이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의 신앙고백 "주님, 믿습니 다."는 죽음까지 각오한 것이었다.

구원은 앎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나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못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67절-

● 당신의 신앙이 차츰 성장하심을 깨닫습니까?

<성서묵상 2>

주제: 참된 목자요 문이신 예수님(요한 10, 1-10)

예수께서는 '목자'이시며 동시에 교회를 위해 일할 수많은 목자들이 통과해야 할 '문'이시다. 생명의 문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보기를 남겨 주셨다.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던 것이다. 양떼를 보살피는 그 분의 방법과 유다계 지도자들의 방법은 '진짜 목자'와 '도 둑'에 비유된다. 목자와 도둑의 뚜렷한 차이점은 양을 다루는 방법에서 나타난다. 도둑 의 목적은 양의 생명을 죽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만 목자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히 해 준다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히 해 준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와의 합일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뜻이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눔: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10절-

● 일부 신흥 종교 교주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를 보면서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만 일

만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안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들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소원한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 았던가.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만일,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항상 '하고 싶다' '갖고 싶다'고 원한다면 당신은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출발해 보라.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재빠른 사람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유수, 아키온, (나를 찾는 길은 가슴속에 있다)에서-